

7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6

가정예배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왕예배교
장 조 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6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히브리서 · 야고보서 · 베드로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 ③ 2006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해있든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삶의 쓴 물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쓴 물을 영원한 생명의 단 물로 바꾸십니다.

성실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보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통해서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적은 무리여!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6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모레셋 사람 미가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묵도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3절). 여기 '땅의 높은 곳'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 정상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인함이라' (5절)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부패한 도시로 손꼽히던 사마리아는 더 이상 풍요와 영화의 대명사가 아니라 들판의 돌무더기 곧 완전한 황폐의 처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호 12:11).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파멸시키되 특별히 그곳에 있던 새긴 우상들과 목상들을 모조리 파괴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의 부산물인 음행의 흔적을 모두 일소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7절). 결국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이 바로 이 가증스런 우상 숭배에 있음을 말해 줍니다.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와 각종 음란과 죄의 악한 영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회개치 않는 백성,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민족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미 1:3)

기도 제목 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②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지자 미가는 유다 땅 모레셋 출신으로,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는 뜻입니다. 모레셋은 유다와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작은 촌락입니다. 미가는 이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서 정치적 배경이나 가문의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의 불붙는 열정과 백성들의 환난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압제와 착취와 부패가 만연된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었던 죄악상은 어떠했습니까?

‘침상에서 악을 피하여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곧바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배층이었습니다(1절). 그런데 이 같은 지도자들의 부패는 백성들의 타락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8절). 이제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 백성들도 서로 다투어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어린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넘기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9절). 이렇게 관리들이 부패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하자 자연히 유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혼탁한 유다 사회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기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애절하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떠날찌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미 2:10)

기도 제목 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소서.
②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온전히 기념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미가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배경이나 가문의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환란과 고통에 동참하였고,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압제와 착취가 만연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습니다.

실로 유다 지도자들의 잔혹상은 마치 유다 백성들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다 백성들은 껍질을 벗기우고, 살이 뜯기며, 뼈가 발리는 도살장의 가축처럼 취급받았습니다(2,3절). 예루살렘은 온통 무고한 자들의 피로 뒤 덮였습니다(10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4절).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11절). 이렇게 당시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는 어떤 죄라도 담대하게 저지르는 물질의 노예요, 종이 되었습니다.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침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엮은 밭과 같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12절). 미가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미 3:8)

기도 제목 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미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하였습니다(1절).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와 그의 산으로 달려가리라고 하였습니다(2절). 그리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배우는데 열심을 품으리라 하였습니다(2절). 이는 메시아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무기를 녹여 농기구로 만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3절).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심고 가꾼 과일 나무 아래서 편히 쉬며, 몸과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4절). 이는 메시아 시대에 주의 백성이 누릴 평화와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안식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5절).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사 메시아 왕궁의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치리하실 것입니다(6,7절). 이를 미가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10절). 하나님께서는 비록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을 회복시키사 당신의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난과 같아서 그 고난이 심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복음에 헌신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미 4:10)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은총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야말로 정녕 유일하신 구원자시요,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만 성도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 고 하였습니다(3절). 이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떤 존재도 세상이 주는 수고와 고통, 탄식과 한숨,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미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발견하고, 구원의 도리, 복음의 참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이스라엘에 참 구원이 임하리라 하였습니다(4-9절).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오셨다' 하였습니다(4절). 그런데 아무리 메시아가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훌륭하게 구원 사역을 수행하신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하고 불결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10-14절). 정녕 철저하게 죄악을 뉘우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 베푸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심도 믿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미 5:4)

기도 제목 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소서. ②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라고 촉구합니다(4,5절). 기억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한하고 풍성하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었습니다. 이는 마땅히 책망받을 죄악이요, 또한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회개 촉구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올바른 태도냐고 반문하였습니다(6,7절).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해, '주께서 정작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8a절)고 하면서, '공의와 인자와 겸손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8b절). 형식적인 제사, 위선적인 예배는 결코 우리의 죄를 없이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가증스런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까지 탄식조로 질책하였습니다(사 1:10-17).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겸손히 이 부름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시 14:1). 정녕 영원한 약속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미 6:8)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일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당시 유다 사회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온통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두려움과 함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이로다'라는 말로 큰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합니다(1절).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노를 당하려니와' (9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 형벌을 거두시기까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선지자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나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4-17절).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영광스런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영광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성도는 어떤 역경에서도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과 승리의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미 7: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나훔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이며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제명은 남유다에 큰 위협적 존재가 되었던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본서 내용이 남유다 백성에게 큰 안위가 됨을 보여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면서 심판주이신 주님의 권능과 선민 유다 민족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에 나타난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면서, 죄악을 행하는 니느웨에 대한 주님의 공의의 속성을 강렬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본 장은 자연계와 이방 백성에게 보여 주시는 주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는 전반부(1-8절)와 니느웨에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반면에 유다에는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보여 주는 후반부(9-1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장은 우리에게 주님을 거역하는 것과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이익과 안락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니라”(나 1:7)

기도 제목 ① 곧 멸망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니느웨가 타국의 침략으로 철저히 노략질당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세를 당당하게 떨치던 니느웨가 그들이 자랑하던 젊은 용사들까지도 모두 적들에 의해 살해되고,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니느웨를 통해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8-13절).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를 짓습니다. 평생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 장에 나타난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심판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놓쳐 버린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나 2:2)

기도 제목 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에서 십자가를 통한 온총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나훔은 니느웨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앗수르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살육과 궤환과 강포로 대변되는 그들의 포악성이며(1절), 또 하나는 마술, 음행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간교함입니다(4절). 이어 이러한 죄악을 범한 니느웨의 멸망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선포하는데(8-19절), 먼저는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아몬(애굽 수도)의 멸망 사건을 실례로 들어 선포하고(8-11절), 이어 떨어지기 쉬운 무화와 열매와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 니느웨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2-19절).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거나 권력을 가지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들은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권세가 끝없이 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은 유한한 것이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나 3:5)

기도 제목 ①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게 하소서. ②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세.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그의 절대 주권적이고도 전능하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압제를 당하거나 악이 번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타락하여 온갖 불의가 행해지고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불의한 자가 공의한 자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생각하는 공의의 하나님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4절).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이 결코 악을 묵과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며, 선지자의 항의 이전에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를 준비해 두셨다고 응답하십니다(5-11절).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 남을 속이고 타인을 짓밟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찌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은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합 1:5)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구역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으나 하필이면 왜 그것이 바벨론이나 하는 것이 1장에서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제기한 그 두 번째 물음은 본 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고, 온 천하는 그의 앞에서 잠잠해야 하며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심판의 도구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인가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주님께서서는 바벨론 역시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다도 심판당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크게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을 담고 있는 전반부(1-5절)와 다섯 가지 재앙(6-20절)을 보여 주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악에 대해 승리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악인의 강포가 아무리 강력하고 드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악인들의 꾀박에 대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 주실 것이며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해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찌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 2:3)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인도하심에 조급하지 않고 믿게 하소서, ② 수요1,2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장은 일종의 시로서 뛰어난 운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의문이 다 풀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1-3절), 능력에 대해(4-7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8-16절), 그리고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17-19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은 특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주요 핵심부입니다. 무엇보다 본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과 길임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써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지도하며 신앙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밝히 보여 주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는 물질들, 또는 육체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며 육체적인 힘도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만물이 없어지더라도 결코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

기도 제목 ①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여름 계절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학교 위에 보혈의 능력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스바나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장에서는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 보여 주고 있는데, 심판이 온 지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양상을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7-13절),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14-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 보여 주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파괴의 날로서, 견고한 성읍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이요 무서운 날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열심히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결코 외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선지자는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형식적인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며 주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서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습 1:14)

기도 제목 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② 금요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심각성을 알린 이전 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찍부터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진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장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전반부(1-3절)와 이방 민족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후반부(4-1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앗수르 등입니다. 본 장에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전망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 가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는 돌아서 세상에 나오면 또다시 과거의 삶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의 말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회개에 걸맞는 행동이 없는 기도는 오히려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마디의 기도보다 한 번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참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습 2:11)

기도 제목 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소서. ② 주일을 온전히 존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과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욕받는 자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16,17a절).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라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수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기라고 하십니다(창 15:1, 수 10:25, 왕상 17:13). 주님의 군대장관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수 5:13-15).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요 14:6).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기도 제목 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만 좇아가게 하소서. ②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13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거하느냐 자신의 뜻대로 증거하느냐인데, 학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선지자였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들 중에 거하셨습니다(마 1:23). 결국 성육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약속이 세상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볼찌라”(학 1:5)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9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보이시는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1: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딤후 3:16).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결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간에 사랑과 평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요 14:27).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진정으로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학 2:23)

기도 제목 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고난에 대한 인내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자기들의 입장에 관하여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시련을 확신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33,34절). 초대 교회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결국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근심하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재산을 빼앗기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벧전 2:21). 고난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치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창 5:24).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5절). 에녹은 이런 삶을 통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6절).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벧전 1:3).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곧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것을 목표로하면서 행하는 삶을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참가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2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행로에서 성공의 소망과 함께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근원이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 때에 누구를 탓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위협하지도 않으시며 끝까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는 즐거움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노골적인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대체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구원을 얻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의식들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11,12절). 죄악된 인간의 죄를 담당한 채 죽음을 당함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불태워졌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이 손질되고 처리된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느 인간들과 다름없는 희노애락의 굴곡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통 또한 여느 인간의 육체가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롬 5:9).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죄 사함도 없게 됩니다(히 9:2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처음부터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의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일깨워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18절).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요 1:14). 우리를 낳으셨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을 뜻합니다(요 16: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고후 5:17).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되신 것입니다(고전 15:20). 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요 1:13). 거듭남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말씀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명령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결국 율법을 어기는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즉 사람의 빈부귀천을 따라 차별하여 대하면서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진정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적극적인 신앙적 태도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13절). 이러한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17절)이라는 말씀을 바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 사랑하신 모두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약 2:9)

기도 제목 ①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선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 난 자’ 라는 뜻을 가지겠지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의 모임’에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누구나 말에 대해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겠지만, 말의 실수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5,6절).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의 권세와 능력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8b절). 그런데 더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다스릴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8a절). 많은 사람들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낸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11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함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심령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 있는 가운데서는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약 3:1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6절). 사람들에게는 늘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정욕에 있습니다(1절).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세속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까닭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2절).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8절).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세속적인 소유들을 자랑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12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16절).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 4:10)

기도 제목 ①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모든 세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현실이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8절). 그것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7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 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6절).

욥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11절). 그리고 욥의 신앙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10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13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기도 제목 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곧 그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다면 능히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3절). 산 소망이라 함은 곧 생명력이 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잠시 동안 누리다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하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8절).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 비교할 수 있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14절). 주를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15절). 이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산 소망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기도 제목 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 산 소망을 가지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②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합니다(4절). 더 이상 예전의 죄악된 모습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절). 하나님은 산 돌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딪히거나 거치는 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8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보배로 교회의 머릿돌이 됩니다(7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ꀁ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22-24). 교회의 안과 밖에서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19절). 그러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를 생각함으로 참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주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20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벧전 2:21)

기도 제목 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고난은 그 자체로는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14절). 어떤 사람도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17절). 그것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9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벤전 2:21).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12).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의인이 되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18절).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진실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벤전 3:17)

기도 제목 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은 잠언에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잠 10:12). 이것은 의인되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질상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혹의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약 5:20).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7절).

우리들은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10절).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8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9절).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들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11절).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벤전 4:16)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7월 구역공과 초점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길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환란과 핍박이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불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쓴 물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알고 말씀을 따르는 삶뿐 아니라 진실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통한 영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 점
0707	출 14:5~14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0714	출 15:22~27	쓴 물	쓴 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라
0721	행 10:42~48	성실과 확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라
0728	눅 12:32~34	적은 무리	모든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라

1. 구역 예배 순서

찬송.....	다같이
기도.....	담당자
구역공과.....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 초 점 |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 찬 송 |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본 문 | 출애굽기 14:5-14

⁵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⁶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¹⁴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죄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롬 5:8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복음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며, 홍해가 열리는 사건은 주님의 부활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 1:29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관한 말씀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 재앙의 충격으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보내주었지만 곧 마음이 변하여 많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갔습니다(출 14:5,6).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

애굽의 군대로 인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들은 공포에 떨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출 14:10).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였습니다.

출 14:11,12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하며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캐물으며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설교문 참조)

두려워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출 14:13

모세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수없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창 15:1).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 41:10 /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출 14:14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이 방향을 바꾸거나, 도망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대적 앞에서 자신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 46:10 / 너희는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후 4:18 /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함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확고히 서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잠잠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출 14:15

우리는 잠잠히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 11:29 / 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
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십자가로 路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는 전멸하였습니다.

출 14:19,20

지금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간절한 기도 |

1.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2. 능력의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원들이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2과 쓴 물

| 초 점 |

쓴 물을 생수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라

| 찬 송 |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 본 문 | 출애굽기 15:22-27

²²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²³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²⁷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 샘 열둘과 종려 칠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출 15:22 /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발견한 물은 쓴 물이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짜증을 내며 불평하였습니다.

※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쓴 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횡단에는 그리스도인의 천로역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쓴 물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생수가 아닌 쓴 물만 있었습니다.

출 15:23 / □□ 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 라 하였더라

시련의 순간은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사가 늘 형통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련이 닥쳐옵니다.

요 16:33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쓴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제외된, 다시 말해 쓴 물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쓴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이 원망하여

마라의 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했습니다.

출 15:24 /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 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족과 실망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우리의 여정에 있는 것은 쓴 물이지, 쓴 뿌리가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골 3:19 /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 하지 말라.

히 12:15 /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약 3:14-16 /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이지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과 모든 □□ 일이 있음이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출 15:25

참 그리스도인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단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해답입니다!

약 1:5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자 모세는 그것을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단 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모든 환난을 이기
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세가 쓴 물에 던졌던 나무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은 그 나무를 모든 죄 가운데에 던지셨고, 그 나무는 죄의 쓰디쓴 저주를
달콤한 행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 7:37 /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
님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교통의
쓰 잔을 마시기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그
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路

쓴 물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쓴 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 찬송가 316장 1절 가사를 써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쓴 물을 영원한 생명의 단 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특별한 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쓴 바닷물을 해치고 항해하여 천국의 물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쓴 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2.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소서.
3.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과 성실과 확신

| 초 점 |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라

| 찬 송 |

찬송가 203장 나 행한 것으로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본 문 | 사도행전 10:42-48

⁽⁴²⁾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였고 ⁽⁴³⁾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⁴⁷⁾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⁴⁸⁾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 고넬료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설교문 참조)

고넬료의 성실함(sincerity)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확신(certainty)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사랑의 수고가 구원에 대한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성경은 고넬료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닌 확신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certainty)해야 합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말씀을 확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행 10:5

고넬료에게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행 10:43 / _____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 5:39

눅 24:44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실함만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행 10:43 /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_____
_____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먹는 것과 이방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행 10:15 /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_____
_____ 하더라

행 10:19,20 /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
씀하시되 _____
_____ 하시니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 10:45

죄 사함을 확신하라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행 10:43 /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_____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도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확실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행 10:48 / 명하여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롬 3:23,24

롬 6:22,23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좀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믿음 뿐입니다.

행 16:31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진실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2. 단순한 성실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하소서
3.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4과 적은 무리

| 초 점 |

모든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라

| 찬 송 |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 본 문 | 누가복음 12:32-34

³²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³³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이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³⁴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공지향적인 설교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물질적인 부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 누가복음 12:32~34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적은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설교문 참조)

- 자신의 소유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_____ 들
-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_____ 들

예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4).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쌓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보세요.

외식을 주의하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은 무리, 곧 제자들에게만 한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눅 12:1 /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을 주의하라

눅 12:22,23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부와 성공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복음 12:31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외식을 주의하여 주님께 속한 참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주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눅 12:32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요 3:3).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갈 2:20).

벧전 2:9

행 26:18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엡 2:12,13

엡 2:6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서는 확실한 승리와 모든 약속들을 신자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욥 1:21 /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_____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하고

초대 교회 신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행 4:34,35 /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 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행 2:44 /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 하고

우리 자신이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되어야 합니다(눅 12:33).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천국의 새로운 주머니와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로 맞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배당금이 영원히 지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路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나 물질 같은 이 땅의 보화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같은 하늘의 보화에 있습니까?

신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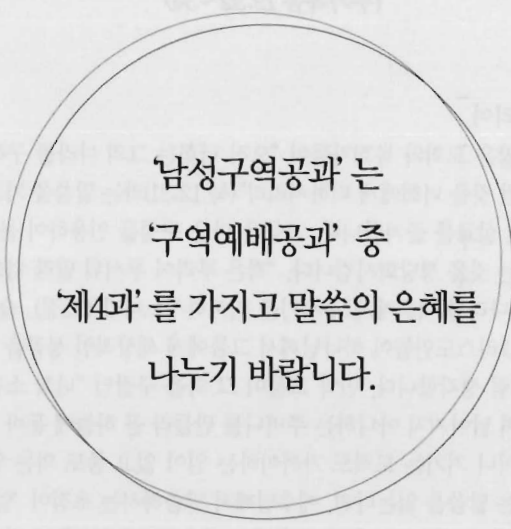
눅 12:34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의 축복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외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공과



‘남성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

⁽³²⁾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³³⁾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³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32~34)

적은 무리여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눅 12:31)라는 말씀을 기초로 성공지향적인 설교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물질적인 부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32절).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기로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다음 구절인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얻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 곧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파는 자들이며, 자기 자신을 위해 저축하거나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34절).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천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쌓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은 무리, 곧 제자들에 한해서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1).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오직 적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눅 12:22,23). 목자와 그의 양떼는 수적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양떼는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은총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세상의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의 부와 성공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복음 12:31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선택한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32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약속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저들나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저들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며 새로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행 26:18).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께 그의 나라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라

그런데 어떻게 세속적인 교회가 이러한 행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12,13은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6).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승리와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신자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행 4:34,35). 사도행전 2:44 또한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자신이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되어야 합니다(33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천국의 새로운 주머니와 전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로 맞바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배당금이 영원히 지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34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나 물질 같은 이 땅의 보화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같은 하늘의 보화에 있습니까?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피부색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피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 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6년 7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매일묵상 : 최종철(1-7일), 장 훈(8-15일), 윤수일(16-23일), 김성훈(24-31일) 목사
구역예배공과 : 양재웅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월]
